

생산·건설수주 희비 교차 광주 ‘쾌청’ vs 전남 ‘흐림’

호남통계청 11월 산업활동동향

11월 광주·전남 지역 생산과 건설수주의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는 생산·건설수주 모두 증가하며 회복 흐름을 보인 반면, 전남은 주요 산업 부진의 영향으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광공업 생산지수는 126.3으로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했다.

자동차(34.3%), 전자·통신(54.6%), 전기장비(20.3%) 등 주요 업종에서 생산 호조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고무·플라스틱(-34.2%), 금속가공(-33.9%), 기계장비(-14.0%)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광주의 건설수주액은 3천3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77.4% 증가했으며 전국 건설수주액 19조5천69억원 가운데 1.7%를 차지했다.

市·광공업 생산지수 전년比 7.9% 올라
道·화학제품·금속 등 부진 4.3% 줄어
지역 대형소매점 판매 ↓…소비 회복 더뎠다

부문별로는 공공 부문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수주 증가의 영향으로 430.4% 급증했지만 민간 부문은 건설업과 기타 비제조업 수주 감소로 21.5% 줄었다.

공사 종류별로는 사무실·점포와 학교·병원·관공서 수주 증가로 건축 부문이 125.9% 늘었고 도로·교량과 상·하수도 공사 확대도 토목 부문도 190.8% 증가했다.

전남은 생산과 건설수주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11월 전남의 광공업 생산지수는 99.1로 전년 동월 대비 4.3% 감소했다.

석유정제(5.5%), 전기·가스업(0.5%), 식품(0.9%) 등 일부 업종은 증가했지만 1차 금속(-1

0.8%), 화학제품(-2.7%), 기계장비(-19.1%) 등 주요 업종에서 생산이 줄어 전체 감소세로 이어졌다.

전남의 건설수주액 역시 전년 대비 12.1% 감소한 4천150억원에 그쳤다.

공공 부문은 공기업과 기타 공공단체 수주 증가로 10.6% 늘었지만 민간 부문은 석유·화학과 기타 비제조업 수주 감소로 16.3% 줄었다.

공사 종류별로는 공장·창고와 기타 건축 수주 감소로 건축 부문이 9.4% 줄었고 항만·공항과 발전·통신 공사 감소의 영향으로 토목 부문도 16.1% 감소했다.

지역 내 소비 동향도 여전히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했다.

광주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4.9% 감소했으며 업종별로는 백화점 판매가 3.4%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판매는 17.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대형소매점 판매지수는 74.3으로 전년 대비 15.3% 감소했다.

/임채만 기자

파티는 즐기면서 ‘출구’는 가깝게

▶주간 증시 전망



김 경 준

유연투자증권 광주 WM센터 차장

지난 한 주간(12월24일~12월30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2.4%, 코스닥은 0.5%가량 상승했다.

해당 기간 외국인도 코스피 2조5천억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2025년 마지막 한 주를 보냈다.

12월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원투펀치가 만들어낸 산타클로스를 보였다. 지난 1년간 이미 5배가량 오른 D램 가격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도 13% 급등하며 내년, 내년 두 기업의 이익전망치가 지속 상승됐고 삼성전자는 미국 테일러 공장의 파운드리 생산량을 2배 늘린다는 소식까지 시장에 퍼지며 어느새 12만 전자에 도달했다. 12월 들어서만 20%의 상승이다.

11월만 하더라도 한 달 동안 두 종목을 13조원 팔았던 외국인이 12월에는 환율 급등락에도 불구하고 4조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신고가를 이끌었다.

현재 시장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인 메모리 반도체 업종이 AI를 기점으로 GPU와 HBM, TPU까지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며 산업이 확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신규 증설도 내년까지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이클의 상단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주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원 달러 환율 급락이었다.

지난 6월부터 반등한 환율은 역사상 처음으로 1,400원을 터치했고 1,500원대 돌파를 전망하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강세를 보였다.

이에 24일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비교적 강한 수위의 구두개입에 나섰고 이와 더불어 기재부는 해외주식의 국내 복귀 지원(RIA 계좌 신설 및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한시적 감면), 개인 투자자 환 위험 관리, 기업 해외 수익 환류 촉진 등을 골자로 한 외환안정

세계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당일 원 달러 환율이 30원 이상 급락, 이번 주도 추가 하락하며 안정화되고 있다.

그간 적정 환율 대비 과하게 오버슈팅했던 점을 감안하면 환율 하방압력이 현재는 우세한 상황이다.

연초에는 1,400원은 지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 상반기 미국 경기둔화로 달러가 추가 약세 압력받을 가능성이 높아 내년 23분기 중에는 1,300원대 후반도 진입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귀금속의 강세와 가상화폐의 부진 이 투자시장에서 특징적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은은 최근 선물 시장에서 하루에도 8-9%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투기적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만큼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는 상황이고 은과 구리는 산업용 사용도 상당한 만큼 중국 경기회복 사이클과 맞물려 역사적 고가에서 움직이고 있다.

반면 가상화폐 시장은 하락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 반값기 이벤트가 종료되기도 했고, 최근 고래투자자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고액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지속해서 나오며 투심이 악화됐다. 연중 S&P500 지수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던 가상화폐 시장이었던 만큼 최근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 하락세로 확실한 전환을 한 것은 아닌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금융시장을 가장 뒤흔들었던 요인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은 내년도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는 이미 많이 부과해 놓은 상황이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내 증시는 작년 말 올해 초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상수준을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의 강세를 보였다.

주요 국가의 증시 수익률만 비교해보더라도 2024년도는 코스피가 끝났지만 올해는 77%에 달하며 상승률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는데, 작년 말까지만 해도 주요 증권사들의 국내 증시 전망은 상당히 어두웠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비관론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180도 바뀌었는데, 내년 2분기부터는 여러 지표들의 피크아웃 가능성이 있는 점은 걱정된다.

지금의 파티는 계속해서 즐기되, 앞으로는 파티장 출구와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박철홍 골드클래스 회장, 국민교육발전유공 정부포상 수상

저소득층 학생 등 꾸준한 후원

“광주 교육발전 헌신 노력할 것”

박철홍 ㈜골드클래스 회장이 국민교육 향상과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30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정부 포상 전수 및 교육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박철홍 회장에게 국민교육발전유공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국민교육발전 유공자 포상은 교육 전 분야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박 회장은 24년간 주택건설사업에 종사하며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관에 꾸준히 후원해왔다.

또한 광주시교육청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에 후원금을 기부하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에 기여했다.

이러한 따뜻한 후원은 광주시교육청 5대 주요시책 중 하나인 ‘희망사다리가 되는 공적교

육’ 실현에 이바지하며 지역사회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박 회장은 “국민포장을 수여받아 영광스럽다”며 “희망사다리교육재단 기부가 큰 공로로 인정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 교육 슬로건 아래 전국 수능 만점 학생을 배출한 이정선 교육감과 관계자들이 높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수상은 광주 교육 발전에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광주 교육 발전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희망사다리교육재단에 많은 기부를 해주셔서 저소득 학생들이 힘과 희망을 얻었고 새해에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고 화답했다.

/박선욱 기자



박철홍(右)골드클래스 회장(오른쪽)이 3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정부 포상 전수 및 교육감 표창 수여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품성한 먹거리와 훈훈한 정이 있는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맛과 멋이 어우러진
능주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3, 8일로 끝나는 날

◎ 장이 서는 날 ◎ 매월 5, 10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시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화순군 Hwasun-gun

광고문의 : 062)650-2099

CMYK